2일 여수시 낙포동 남해화학(주)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폐 석고 보관장. 굴삭기 5대가 검은색 물막이벽으로 뒤덮인 폐 석고 보관장에서 인 찌꺼기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광양만에 인접한 보관장엔 1천500만t의 폐 석고가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엑스포 도시에 흉물 폐 석고더미

남해화학 수 천만t 30년 째 쌓아둬

여수 환경단체 "해양·토양도 오염"

남해화학(주)이 수십 년째 인산비료 부산물인 폐 석고 수 천만t을 공장 앞 부지에 쌓아둬 '2012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인 여수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특히 폐 석고는 카드뮴(Cd) 등 유해 중금속이 함유돼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회사 측은 적절한 처리방법을 찾지 못한 채 4~5층 건물 높이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여수시 낙포동 남해화학 공장 앞 도로 건너편 부지에는 폐 석고 1천500만t(여수시 추정치)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폐 석고는 인산비료 주원료 중 하나인 인광석에서 인(P)을 추출한 뒤 남은 찌꺼기다.

여수시와 남해화학,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매년 발생되는 폐 석고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남해화학 측은 30년 전부터 재활용 또는 자체보관 형식으로 폐 석고를 처리해왔다. 회사측이 조성한 부지에 보관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은 2천만t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폐 석고 연간 발생량에 비해 재활용량은 극히 적다. 지난 2007년 70만t을 모 석고보드 제조업체에 처분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인 찌꺼기의 양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회사측은 이렇다할 처리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폐 석고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 달리 수집운반 처리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해화학측은 율촌산단 조성과정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폐 석고를 매립토로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받고도 운반 비용 등을 이유로 거절했었다.

이처럼 광양만을 끼고 있는 여수산단내 주요 도로변에 수 천만t의 폐 석고를 장기간 쌓아놓으면서 '여수엑스포' 개최를 앞둔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오가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폐 석고엔 '이타이이타이병'(뼈가 약해져 잘 부러지는 공해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큰 카드뮴이 함유돼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해화학은 5년 전 석고 침출수 유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여수환경연합 등시민단체들의 지적을 받고 환경영향조사와 공정정밀진단 등을 거쳐 폐 석고 보관장에 물막이벽과 침출수 정화시설 등을 설치했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유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폐 석고는 해양은 물론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남해화학 측이 적절한 처리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자원 낭비는 물론 주변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모로코 등 해외에선 폐 석고를 해양투기 또는 흙산림비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밝혔다.

회사측은 폐 석고 보관장 부지면적과 보관량·연간 발생량·재활용량 등에 대해선 '대외비'라며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여수=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정진호 침몰 40분' … 도대체 무슨 일이?

탈출 포기·연결 핀 분리 '의문 투성이'

"침몰한 정진호가 석진호에서 분리되기까지 40여분간 도대체 두 배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가 3일로 발생 7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이렇다할 구조 성과나 침몰 당시 정황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실종자 가족들과 해경 등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5일 동안의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정진호의 침몰 여부나 장소는 물론, '배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며 이 배에 남은 유진군(54) 선장 등 선원 5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부산~중국 리자오의 원정 항해에 나선 두 배의 연결 핀이 파도에 의해 허망하게 빠져나간 것도 의문점이다.

유 선장의 딸 유모(25)씨는 "무동력선 석진호와 동력이 장착된 정진호를 연결하던 3개의 핀이 단순한 파도 때문에 분리됐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며 "특히 두 선박을 연결한 핀은 유압을 이용해 조립·분리되는데 어떻게 40여분 만에 핀 3개가 모두 분리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씨는 또 "3개의 연결핀 중에서 1~2개가 빠져 위기에 처했다면, 정진호를 포기하고 충분히 석진호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에서 굳이 끝까지 배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어야 했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나 선원 등은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선원 A씨(40)는 "실종된 정병학(38)씨와 2005년에 함께 배를 타는 등 20년여간 정진호와 비슷한 형태의 배로 항해를 했는데 두 배를 연결한 핀이 파도에 분리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대 선박해양공학과 방한서 교수는 "바닷물이 선박에 가하는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큰 만큼 높은 파도만으로도 연결핀이 분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배가 너무 고파서…"

전북 일가족 4명 광주서 쇠고기 훔쳐

취직 못한 20대 고시생 김치·과일 '슬쩍'

지난 2일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모 대형 할인매장 식료품점. 김모(여·32·전북 익산시)씨는 시아버지(61)와 남편(29), 아들(6), 딸(3) 등과 함께 쇠고기·과자·과일 등 11만3천원 상당의 생필품을 고른 뒤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료품점을 빠져 나갔다.

이를 목격한 매장 보안팀이 곧장 뒤쫓아갔다. 출동한 경찰이 지하 주차장에 숨어있던 이들을 잡고 보니 모두 한 가족이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1개월 전 실직한 뒤 생활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남편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광주를 찾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북부경찰은 지난 1일 고시원 공동취사장에서 과일과 김치 등을 훔친 김모(27)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가 떨어졌다. 하도 배가 고파 남의 음식을 훔쳐 먹었다"고 진술했다.

최근 장기불황 여파로 구직난이 가중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이날 현재 각 경찰서에 접수된 생계형 범죄 건수는 대략 10여 건. 이 같은 생계형 범죄는 일자리 창출·사회복지수준 향상 등 사회적인 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딸 자살 비관 70대 아버지 목숨 끊어

지병을 비관해온 딸이 자살한 것을 괴로워하던 7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일 오후 9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사는 김모(62)씨의 집에서 세들어 사는 박모(71)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져 있는 것을 박씨의 딸(25)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박씨의 안방에는 마당에 있던 높이 50㎝의 화덕이 있었고, 화덕 안에는 연탄불이 피워져 있었다. 박씨의 딸은 경찰에서 "전날 밤 꿈자리가 사나워 주인 집에 전화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부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온 박씨는 3개월 전 지병을 앓던 셋째 딸이 자살한 것을 보고 매일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박씨가 최근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

실종 남편 찾으러 나선 70대

23시간 표류하다 극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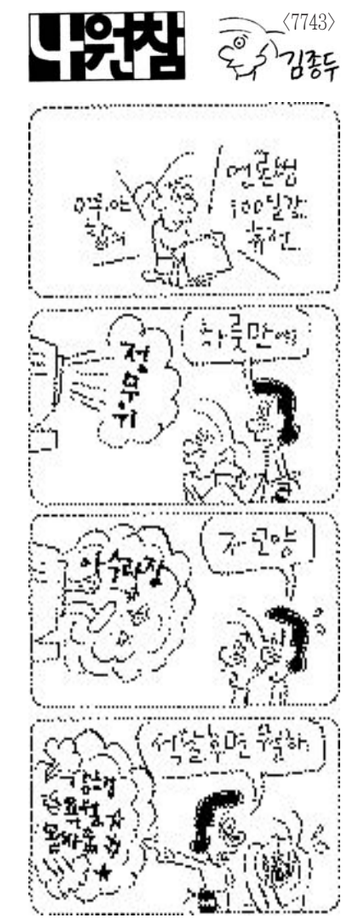
완도 금일 해상서

3일 오후 2시께 완도군 금일읍 칠기도 동쪽 600m 해상에서 박모(여·74)씨가 1.5t 어선을 타고 표류하다가 구조됐다.

박씨는 전날 사고해역 인근에서 남편 이모(80)씨와 함께 1.5t 어선을 타고 미역을 채취하던 중 갑자기 사라진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표류, 인근 해상을 지나던 2.54t급 어선 '성일호'(선장 김모씨·45)에 발견돼 23시간만에 구조됐다.

박씨는 선박의 운항법을 모르고 휴대전화 마저 고장나 구조요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실종된 남편 박씨를 찾기 위해 경비정 4척과 민간자율구조선박 5척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37억 지급보증서 위조

나주경찰, 20대 구속

나주경찰은 3일 37억5천만원 상당의 은행지급보증서를 위조한 서모(28)씨를 특경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박모(여·49)씨 등 3명이 지난 1월 21일 나주 S농협에서 불법 사용한 7억원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한 혐의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선박 훔친 '통큰 女'에 경찰 혼쭐

쌍나팔

○…목포해경은 3일 선착장에 정박 중인 어선을 훔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김모(여·42)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신안군 도초면 선착장에서 정박 중인 4t급 신안선적 어선(선장 이모씨·41)을 몰래 훔쳐 타고 간 혐의.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훔친 어선을 타고 4㎞ 운항하던 중 닻이 갯벌에 박혀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극렬히 저항.

○…김씨는 선착장에 배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선주의 신고로 덜미. /목포=이상휴기자 lsh@